

인터넷은행법, 국회 본회의서 부결

# K뱅크 정상화 난망, 고민깊은 KT

거의 1년째 신규대출영업 중단  
신규주주 영입 등 자본확충 고민  
차기 행장 단독후보 이달 확정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가 영업정상화에 비상이 걸렸다.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한 인터넷은행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서 부결되면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길이 막혀버렸다.

당초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 예상과 달리 반대의견이 거셌다. 일부 상품을 시작으로 케이뱅크가 신규 대출영업을 중단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해법을 찾기는 힘든 상황이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 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184인에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부결됐다.

◆케이뱅크, 자본확충 난망… ‘플랜B’ 가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은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이날 반대 목소리를 감안하면 향후

에도 국회 통과를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인터넷은행은 혁신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불법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다”며 “공정거래법을 삭제하기로 하는 것은 KT라는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인만큼 상임위원이 다시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케이뱅크는 신규 주주 영입이나 KT의 관계사를 통한 유상증자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본 확충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협의에 따른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가장 급선무는 자본확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신규 대출영업의 재개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 일부 대출상품의 영업을 중단했으며, 현재는 예적금 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현재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5051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인터넷은행 2호 카카오펙(1조8000억원)의 3분의 1수준이 채 되지 않는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KT가 지분을 34%로 확대한다는 것을 전제로 5000

억원 안팎의 유상증자를 계획했지만 대주주 적격심사가 중단되면서 276억원의 브릿지 증자만 이뤄졌다.

◆케이뱅크 차기 행장, 다음주 결정

케이뱅크는 자본확충과는 별개로 차기 행장 선출을 위한 절차는 변함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3월 말 주주총회에 앞서 다음주 중으로는 차기 행장 후보가 확정될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26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행장을 선출하기 위한 일정을 시작했다.

기존 심성훈 행장은 지난해 9월로 2년의 임기를 다 채웠지만 자본확충 등을 이유로 3월 말 주총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 상태다.

일단 심 행장을 비롯해 옥성환 경영기획본부장과 안호조 사업총괄본부장, 김도완 ICT총괄본부장 등은 차기 행장 상시 후보군이다.

여기에 대주주로 올라설 KT 관련 인물들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KT의 금융 계열사인 비씨카드 이문환 전 대표와 케이뱅크 출범을 이끌었던 KT 김인회 전 사장 등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삼성금융계열사, 개방형 협업우수 스타트업 선정  
지난해 12월 초 삼성금융 4개사와 삼성벤처투자는 ‘삼성금융 Open Collaboration(오픈 콜라베이션)’ 본선에 진출한 스타트업 CEO들을 초청해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삼성생명

## 선전한 저축銀 CEO, 연임 분위기속 교체도

JT친애, 9년만에 첫 CEO 교체  
하나저축은행, CEO 연임 확정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업계에 작은 변화가 일고 있다. 지난해 저축은행 실적이 역대급으로 선전하면서 회사 성장을 이끌어 온 기존 CEO들이 연임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오랜 시간 회사를 지켜온 CEO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례도 발생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JT친애저축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박윤호 JT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을 최고경영자(CEO)로 추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JT친애저축은행 출범 이후 8년 간 회사를 이끌어 온 윤병목 대표는 임기 만료와 함께 물러날 예정이다.

윤병목 대표는 지난 2012년 저축은행업 인가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임

기를 연장하며 JT친애저축은행을 이끌어 왔다. 당시 총자산은 1조166억원이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2조4225억원까지 늘었다. 출범 당시 57억원 적자를 본 이후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등 변화를 모색한 뒤 출범 3년 만인 2015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또 하나금융지주관계금융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최근 오화경 하나저축은행 CEO의 연임을 확정했다. 오 대표는 지난 2018년 하나저축은행의 첫 외부인사로 HSBC 전무와 아주저축은행 대표이사, 아주캐피탈 대표이사를 역임한 인물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하나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61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성적을 올렸다. 순이익에는 큰 성장세가 없었지만 자산 건전성을 높이는 등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자동이체족 모여라”

# 우리카드, 혜택의 교과서 ‘카드의정석’

아파트관리비 등 연 최대 21만원 할인  
집콕족 위한 OTT 자동납부 혜택도  
10만원 이상 이용 이벤트 함께 진행



카드의정석 APT /우리카드

우리카드는 자동납부 서비스 이용고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고객의 카드 자동이체 서비스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타깃 고객군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최근 ‘카드의정석 APT 플래티넘(Platinum)’, ‘카드의정석 APT’, ‘카드의정석 APT 체크(CH ECK)’를 출시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혜택은 신용카드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 및 도시가스를 자동납부 했을 때 연간 최대 21만6000원(관리비 최대 18만원, 도시가스 3만6000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 체크카드 역시 연간 최대 12만원의 아파트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다.

‘집콕족’을 위한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자동납부 할인 혜택도 담았다. 신용카드 2종은 유튜브 프리미엄 및 넷플릭스 월 정가권 30% 할인이 공통으로 탑재되어 있고, 체크카드도 유튜브 프리미엄 정가권 30% 할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더불어 ‘카드의정석 APT Platinum’은 학원업종 10% 할인(연간 최대

12만원, 관리비 포함 최대 30만원 할인), 전 세계 공항라운지 무료 입장(월 1회 연 2회), 프리미엄 투어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된다.

해당 카드로 10만원 이상 이용하면 벤츠 C-class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5월 말까지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벤츠 C-class(1명), 셀리턴 LED 마스크(3명), LG 스타일러(5명), 삼성 공기청정기(1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981명)를 증정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5일 “최근 카드 자동납부의 대세로 자리매김한 아파트 관리비와 새로운 소비문화로 떠오르는 구독경제 서비스 할인이 모두 탑재된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편하게 자동납부 하시고 쓸쓸한 혜택을 누리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왼쪽부터)신임 부원장보 김종민, 이진석, 박상욱, 김동회, 조영익.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신임 부원장보 5명 임명

금융감독원은 5일 신임 부원장보 5명을 임명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 간이다.

기획·경영부문 부원장보에 김종민 전 기획조정국장, 전략감독은 이진석 전 검찰실 국장, 보험담당은 박상욱 전 생명보험검사국장, 금융투자는 김동회 자본시장감독국장, 소비자피해예방 부문은 조영익 전 감독총괄국장이 임명됐

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임명된 임원은 금융에 대한 전문성과 리더십, 혁신에 대한 마인드를 겸비한 전문가”라며 “금융시스템 안정 도모,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 피해기업 “키코 배상에 이유 들며 미뤄”

>> 1면 ‘배임우려에...’서 계속

배상금액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배상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앞서 금감원은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들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협의체를 꾸려 배상금액을 자율 조정하게 했다. 분쟁조정 결과에 따르면 은행이 147개 피해기업까지 배상하게 될 경우 200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배상결정이 쉽지 않은 이유다.

이같은 은행의 반응에 키코 피해기업의 반발은 거세지는 모양새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신한은행을 비롯한 나머지 은행들이 키코 배상에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배상수용을 미루고 있다”며 “면담 요청에 정식 회신이 없을 경우 9일 오후 2시에 항의 방문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도 난감한 상황이다. 두 번이나 시한을 연장한 만큼 자칫 은행에 끌려 다닌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은행에 충분한 시간을 줬지만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쪽에서 생각을 해볼 시간을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다”며 “연장을 해주지 않아 합의가 불발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어 은행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우리은행-기보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우리은행은 5일 기술보증기금과 ‘혁신기업 스케일업 및 기술창업 활성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 5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총 205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실시한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코

로나19 피해기업, 일자리창출기업, 혁신성장기업, 사회적기업 등이다.

우리은행의 특별출연금 40억원을 재원으로 기업은 보증비율 100%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고, 대출도 최장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제도(C1, C2) 등을 활용해 더욱 낮은 금리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